

강기정 시장, 설 연휴 앞두고 민생 행보

송정매일시장서 장보며 현장 소통...화재공제 가입 독려 금호타이어 찾아 노사에 상생발전 당부...공장이전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시정 화두인 '더 따뜻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밤·야채 등을 구매하고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했다.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캠페인을 벌이며 동절기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시장 내 한 국밥집에서 '전통시장'이 일어 설날입니다'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송정매일시장 이경자 상인회장, 나정철 부회장 등 상인회 임원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탄핵 정국이 몰고 온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극복해 '소비 그릇'을 키울 방안을 모색했다.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소비그릇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새해는 절망

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다가오는 설이 '다시 일어설 날'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불입 조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 시장은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황경순 2노조 위원장, 오윤영 3노조 위원장 등과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승세인 금호타

이어 경영 상황을 전해 듣고 공장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와는 공장 이전에 따른 고용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2017년부터 금호타이어 노사를 여러 차례 만나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해법 찾기에 노력해왔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공동 중이더라도 회사 측이 새 공장 부지 매입, 착공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자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하면 용도변경 사전 협

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광주에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은 지역의 숙원이고 광주의 교통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노사의 뜻에 따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변진기기자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장흥 유치-화순 이양' 지방도 임시개통

2천346억 투입 귀성객 편의 제공...내달 정식 개통

전남도는 21일 "설을 맞아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방도 89 3호선(장흥 유치-화순 이양) 전 구간을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

2009년 착공한 '유치-이양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24년 말까지 2천346억원을 들여 19년간 진행된 대규모 확포장 사업이다. 이번 임시 개통 기간 중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오는 2월 전체 구간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개선 구간은 총 15.03km다. 2016년 장흥 유치 교차로에서 우산 교차로까지

4.5km 구간을, 2019년 장흥 우산 교차로에서 화순 청풍 교차로까지 7.2km 구간을 부분 개통했다.

이번 임시 개통 구간은 화순 청풍 교차로에서 국도 29호선과 연결되는 야문 교차로까지 3.33km다. 최종 점검 후 정식 개통되면 기존 45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돼 교통 안정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여름철 산사태와 겨울철 폭설로 통제되던 지방도 구간은 붐비산과 갓대봉을 관통하는 터널 2개소(0.8km),

교량 20개소, 교차로 10개소가 설치돼 사계절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

터널 진·출입로에는 친환경 제설제 자동분사 장치가 도입돼 겨울철에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랜 기간 진행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만큼 임시 개통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 최종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간선도로 확장으로 역사, 문화, 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송지사, 감사 수습·지원 직원 격려

전남도 전 직원에 '감사의 글'... "따뜻한 위로 고마워"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에 고생한 도청 전 직원에게 감사의 글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감사의 글을 통해 "도청 직원들이 사고 첫날부터 유가족

분들을 1대1로 전담하며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정성껏 보살피 주셨다"며 "헌신적 지원과 따뜻한 위로 덕분에 유가족 분들께서 큰 슬픔 속에서도 소중한 작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시길 바란다"며 새해 인사로 감사의 글을 맺었다.

전남도는 합동추모식 이후에도 사고 수습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과 치료, 돌봄, 생계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특별법 제정에 힘을 계속 쏟는다. /김재정기자

임종석 "당내 민주주의 숨죽인 민주당"

페이스북 통해 '新明계'·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대표적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

판했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 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

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 '신명(新明-새로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왜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가나"라며 "상대의 실수에 얽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최권한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고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

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최 대행은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고교육법·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을 다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박시중(310920-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규정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권 또는 수습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428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이정순, 박성규
○한정승인수리일: 2025년 1월 14일
○공고기간: 2025년 1월 22일 ~ 2025년 3월 22일
○연락처: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10-18 (010-8422-855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임동 더현대 쇼핑타운 인접도로변 최고요지
2층건물 대지144㎡ 급매4억3,600
식당, 카페, 편의점 최적

임동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선점하세요)

임동 5거리 2,300세대 아파트대로변
더현대쇼핑타운 생활권(500여미터)
임대가격으로 매수가능 시세50%급처분
10층 431.48㎡ 급매가4억3,000
승강기1,주차40대
학원,병의원,하늘정원식당등 최적

급히구합니다 = 조건만약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